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에베소서 강해

## 이 복음을 위하여

### (에베소서 3:7)

복음은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시는 모든 사건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 안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 1.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혹은 ‘두나마이’라는 명사와 동사로 읽을 수 있습니다. ‘두나미스’는 ‘하나님의 힘’, ‘두나마이’는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훼방자였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게 합니다.

‘역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고온’이라고 읽으며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받아 사람이 일한다는 말입니다.

#### 2. 복음을 위한 삶

#####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통해 받은바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을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완전히 주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고 또 주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만큼 나누어 주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방법입니다.

#### 3.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

#####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일꾼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 매를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배도 주려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은 물론 여러 환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는 시간은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순간 순간, 하루 하루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For the gospel

### (Ephesians 3:7)

The gospel refers to the nativity, death, resurrection, and second advent of Christ. God has called us by this gospel message, has led us into the way of salvation, and has made us His children.

#### 1. A church in which God's power is at work

##### “...through the working of His power”

The church must be a church in which God's power is working. The true church operates by God's power. We can see that the word, 'power' is 'dunamis' or 'dunamai' as a noun or verb in the Greek. 'Dunamis' means 'God's power' and 'dunamai', 'to be able to.'

Paul, who was once an obstructor of the gospel was changed into an apostle of the gospel through God's power. God's power is able to make an impossibility a possibility, and a sorrow into a pleasure.

'To work' is the word, 'elgowon,' in the Greek, meaning 'to practise.' Therefore, 'to work' expresses the fact that since power has been given by God, we are able to work with God's power. In other words, we don't need to look around for power from God, but we can work with the assurance that we have already received power from God.

#### 2. A life lived for the gospel

##### "...for this gospel"

The fact that we can share the grace that we have received through the gospel and live our life according to the gospel is the life of the gospel. God shows us that we should not keep to ourselves this indescribably abundant grace that we have received, but distribute it to others.

Since Jesus Christ has been given to us, and was crucified on the cross, and since He has completely given Himself for us, we have been saved. Therefore, we must also give and give, living a life of sacrifice. Before God, we need to give as much as we have received. To give as we have received is a way of living our life for the Gospel.

#### 3. Christ's servant for the gospel

##### "...I became a servant."

The apostle Paul didn't tell others to be a servant, but he himself became a servant. He had been constantly beaten, imprisoned, and starved for the sake of witnessing to the gospel. As far as the gospel was concerned, he was willing to undertake any amount of pain, sacrifice, or suffering.

#### My beloved Christians!

Because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we are living in a very precious moment in time. Because of this gospel,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become Christ's servants every moment of every d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이종운 목사, Global Think Tank 멤버로 참여

## 제3차 로잔 세계대회 - 10월 16일~26일

200개국에서 4000명의 교회지도자들과 바티칸, WCC, 정교회 등 교회관련기관에서 400명의 초청인사를 포함하여 5000명이 모여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10월16일부터 26일까지 제3차 로잔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전세계 80개국의 80,000명의 신학생, 선교사, 개교회 지도자들이 400 Global Link sites에 참여한다.

이 세계적 대회 경비를 위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200만불(US)이 모금되었다. 그중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130만불의 현금이 되었고 앞으로 약정된 270만불 이 더

모금될 것이다. 예산보다 400만불이 부족하여 우리교회가 5만불을 그리고 한국에서 로잔 참가자들이 50만원씩 100명이 5만불을 만들어 도합 10만불을 보내기로 하였다. 1974년 로잔 1차대회이후 세계복음화를 위한 Think Tank역할을 자임한 로잔운동의 핵심기구인 Global Think Tank멤버로 한국에서 조중남 박사(서울신대 전 총장)와 우리교회 이종운 목사가 참여하게 된다. 이 기구에서는 정부, 산업, 아카데미아 제반 영역의 방향을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제시한다.

# 성경통독사경회

## 9월22일(수) 오후1시 ~ 23일(목) 오후5시 / 창세기 ~ 사사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우리교회 성도들은 성경통독사경회로 모인다. 이번 성경통독사경회는 9월22일(수) 오후1시부터 23일(목) 오후5시까지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리며 교재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한다. 통독범위는 구약성경(창세기 ~ 사사기)이며 우리교회 교역자들이 강사로 선다. 매 교시당 4명의 교역자가 1장씩 번갈아 낭독하고, 낭독자가 성경을 읽는 동안 성도들

은 일체의 잡담을 금하며 새로운 창을 시작할 때는 전체가 "00장"이라고 외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며 "아멘"이라고 외친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은혜 받고 주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회비는 1만원(식비, 간식비)으로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해한다

## 강사 이종운 목사 특별새벽기도회: 11월1일(월) - 11월27일(토) 새벽5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전도'를 위한 2010년 사명자 대회가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을 주제로 10월10일(주)부터 11월28일(주)까지 50일간 진행된다.

대회 기간 동안 전교인이 1명씩 전도하는 태신자 작정, 주일을 제외한 11월1일(월)부터 27일(토)까지 24일간 이종운 목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강해하는 특별새벽기도회, 50일동안 24시간 계속되는 연속기도회, 모든

성도가 매일 오전10시와 오후10시에 열열이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 성경암송대회 등 주님이 기뻐하실 많은 행사가 진행되며 서울교회 설립 50일 전부터 시작된 대회의 전통을 이어간다.

국가와 민족, 가정과 교회를 위해 연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전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기도하고 전도로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

# 2010 성경암송대회

- 10월17일(주) 교회학교별 예선
- 10월22일(금) 본선
- 범위 : 로마서 6-10장

2010년 성경암송대회의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성경암송대회 범위는 로마서 6장부터 10장까지(개역개정판, NIV)이며 10월17일(주)에 각 교회학교별로 예선을 갖고 선발된 이들은 본선에 참여하게 된다. 본선은 22일(금) 오후7시에 602호, 603호, 609호에서 3개조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24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시상 및 발표를 한다.



2009년 성경암송대회 - 유아부 최준영 어린이

# 2010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계속 접수 중

2010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교회의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을 위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강의를 우리교회 성도들과 이웃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으니 성도들은 한 과목이상 수강하여 여가를 활용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동참하기 바란다.

# 한 장로교단 속의 다체제에 대한 신학적 전거<2>

순례자는 지난 7월 10일 제2회 장로교의 날에 제안한 '장로교 한 교단 다체제(多體制) 제도'에 대해 이종운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 회장)가 한국기독교공보에 특별기고한 것(계속 연재 중)을 발췌한다. <편집자주>

## 나. '한 교단 다체제'가 장로교 교회론에 합당한가?

합당하다. 왜냐하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가리켜 '공교회'(catholic church) 혹은 '보편교회'(universal church)라고 불렀다. 택함 받은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로 만들어진다. 또한 칼빈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 말하기를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the communion of saints)라는 조항이 있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 양떼의 한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하나의 공동체'(a community)라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한 교단 다체제'의 교회연합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고백서는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말하기를 "1. 불가시적인 보편적 교회는 택정함을 받은 자의 총수(總數)로 되어 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하나의 모임이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요, 만물을 중만케 하시는 자의 종만이다." 라고 하였으며, "2. 가시적 교회 역시 복음 아래 있는 보편적 교회로서 - 구약시대처럼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될 수 없다 - 기독교를 신봉하는 이 세상에 흠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만 정상적으로 구원을 얻고 최선의 성장과 섬김을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 살펴본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증명하고 있는 교회론에서 한국장로교회의 어느 교파도 일탈하지 않는다면 '한 교단 다체제'의 교회연합 형태는 서둘러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 다. 교회사에서 '한 교단 다체제'의 예가 있었는가?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가?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편협한 교파주의자들에 의해서 붕괴되었다. 칼빈은 항상 종교개혁 전통을 보전하는 모든 교회의 일치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루터의 제자 멜랑히톤이 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주저하였고, 독일 신학자 요하킴 베스트팔이 과도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루터교회와의 일치가 좌절되었다. 이때부터 편협한 신학적 시각을 가지고 상호 정죄하는 교파주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한국교회 초기에 4개 장로교단, 즉 미국북장로교회, 미국남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및 캐나다장로회는 선교활동에 있어서 방법의 통일성과 노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에 개혁신앙과 장로교 정치형태를 지닌 하나의 토착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장로교 공의회를 결성하여 연합으로 복음을 전하고 활동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한 교단 다체제는 한국교회 초기에 이미 자랑스럽게 실천했던 예를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다.

(다음호 계속)

목사이중운 · 박사이중운 - 목회자의길 7

# 죽도록 사랑(신앙)하고 죽도록 공부(이성)하려다가

**대학졸업때** 각 단과대학 대표들이 졸업소감을 연세 춘추에 신게 되었다. 이종윤은 “나는 대학생활 실패자”라는 글을 썼다.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공부하고 싶어 대학입학을 했으나 돌이켜보니 사랑을 못한 것이다. 그가 사랑하려 한 분은 당신 하나님밖에 누구이겠느냐 하면서 죽도록 사랑(신앙)하고 죽도록 공부(이성)하려다가 둘다 못이룬 실패자로 교문을 나간다고 썼다. 교수들이 큰 걱정을 하면서 이종윤은 당시 학과장인 문상희교수에게 불려간다. “이군 학사고시(5.16직후 생긴 제도)에서 전국 일등을 했고 그러나 대학실패자이니 대학원 입학하라”는 명령을 하신다. 이종윤은 빨리 미국유학을 가고 싶었다. 그래서 그당시 국가가 시행하는 유학시험도 합격했다. 현대 갑자기 대학원 진학을 하라한다. 당시 대학원은 교수양성기관처럼 한 학기에 학과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한 두명을 뽑았다. 감신, 한신, 장신, 총신등에서 그 학교들은 대학원이 없어 1,2등하는 이들이 연세대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어떤 때는 10대1도 더 되는 경쟁이 심한 학과다. 그러나 이종윤은 선생님들의 말씀대로 대학원 진학을 했다.

전공은 신약신학, 지도교수는 Goodwin박사다. 하버드대와 옥스퍼드에서 연구하고 학위를 받은 성공회 선교사로 한국에 오신 분이다. 두 학기를 마칠 무렵 그 분은 안식년으로 떠나심으로 문상희 교수가 지



대학졸업반 시 진학이나 유학이나 갈림길에서

교수가 된다. 이종윤의 관심은 바울신학이다. 문상희 교수의 관심은 역사적 예수였다. 사제시간에 논문제목 정하는데 한 학기를 보냈다. 결국 찾아낸 제목이 『바울에게 있어서 역사적 예수문제』였다. 이종윤은 문상희 교수의 애제자로 조교 심부름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 무렵 이종윤이 섬기던 총현교회는 이종윤을 중등부 지도로 임명한다. 그의 열심이 특이하여 목요회를 조직하여 서울에 있는 97개 중고등학교마다 목요일이면 총현학생들이 자기학교에서 필그림이라는 주간신문에 게재된 예배 모범을 따라 예배를 드렸다. 중부경찰서 유치장 전도를 시작하여 후에 경목회를 조직케하고 총현교회 김창인목사를 초대회장으로 추대케 한다. 을지로5가에 있는 메디칼센터에 학

생들을 팀으로 조직하여 환자전도를 하므로 의료 선교회를 출범케 한다. 당시 총현교회 학생회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 그 숫적이나 질적으로 우수한 학생회로 자타가 공인했다.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를 열어 뜨거운 학생신앙 운동이 뿌리를 내리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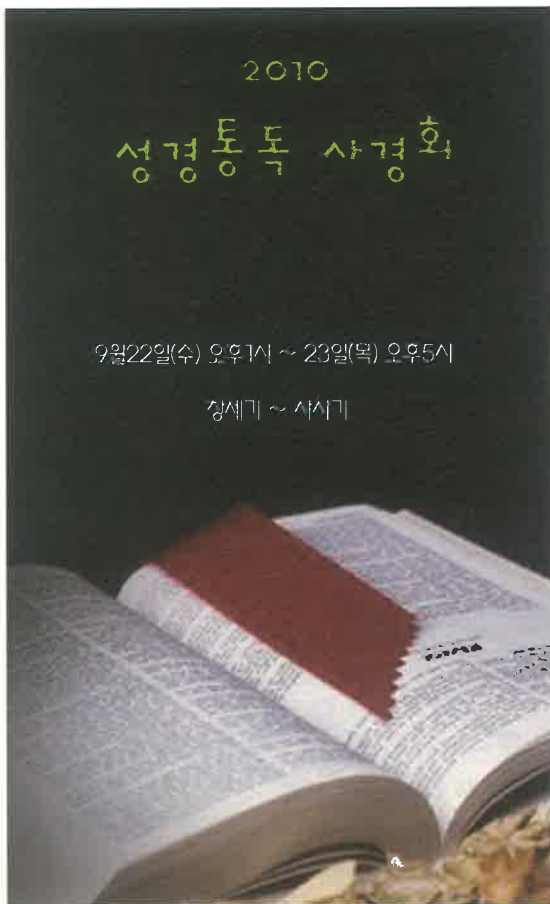
총현교회 허준장목사께서 답십리에 위치한 한영중고등학교를 인수하고 이종윤에게 기독교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있었다. 이종윤은 학원전도가 얼마나 효과적인 것임을 포착하고 즉시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고 고1영어, 고2독어 교사로 부임한다. 후일 교목실을 창설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채플이 있는 명실공히 기독교학교로 거듭났다. 이종윤은 허준장목사의 제안을 받고 깊은 기도 후에 두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그것은 교사 인사권과 교목실 신설 건이었다. 두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이종윤은 방과후 수업까지 하면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키웠고 신앙을 심으려고 노력했다.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던 고 홍종만집사(후일 목사가 되어 홍공선교사로 파송된 후 질병으로 병사하심)께서 자기 조카와 한번 사귀면 좋겠다면서 이종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다음 호 계속)

성경통독사경회를 기다리며

## 그분의 이야기에 푹 빠져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나미용집사(12교구)

살아계신 어르신으로부터 역사적인 그 시대, 그 당시 얘기를 들으면 생생한 실감과 함께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선생님으로부터 한국사나 세계사 말씀을 들을때도 과거속에 주인공이 되어 남아있는 유적지를 헤매이곤 합니다.

여기 바로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적인 그분의 이야기(History)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주인공이 되어 너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년 풍성한 추석이나 설이 되면 우리 서울교회는 말씀으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창세기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선지서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신약전서를 통한 주님의 사역을 생생하게 들읍니다.

평소에 이리핑계 저리핑계로 밀쳐놓은 성경말씀을... 또한 단편적인 말씀에서 주님의 긴 역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나 이때만큼 신화나 설화가 아닌 생생한 역사적인 사건이요 말씀인 것을 실감할 때도 없읍니다.

올해는 구원의 과거사, 역사하심을 들읍니다. 창세기로부터 사사기까지... 이스라엘의 불충과 패역이 어느새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푹 빠지게 됩니다. 부목사님들께서 앞장서서 전심을 다하시며 성령 충만한 통독하심으로 세상천지가 열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며, 노아가 방주를 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며,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는 구원의 역사가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동참한 성도들은 말씀이 충만하여 어느 때 보다도 회개와 감사와 구원의 감격으로 모두가 천사가 됩니다. 그분의 구원사역이 벌써부터 설레임으로 기다려집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시며 시시때때로 풍성한 말씀으로 서울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10 사랑의 바자 현장에서

# 사랑의 바자, 더욱 성숙해진 바자

김금준집사 (2010 바자위원회 차장)

할렐루야!

서울교회 바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 거듭할수록 매년 더욱 풍성해지고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가장 힘든 봉사를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관심을 두신 사람들을 서울교회가 바자를 통하여 돕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지난 8월 한달 동안에는 사랑의 나눔운동인 A+운동을 전개하였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9월 9일~10일에 열린 사랑의 바자에서는 백화점식 Food Court 개념을 도입한 위생적이고 편리한 식당운영과 품목별 매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이 일어났었지만 막상 개장을 하고 보니 밀려오는 고객들로 인산인해가 되었으며 각 교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별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바자에는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바자위원회 각 임원들과 각 교구장 장로님들과 교구간사, 교구식구,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더 팔려고 힘쓰시는 성도님들, 열악한 환기상태 가운데서도 땀을 흘리시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재정위원과 사무국직원들, 특히 직장에서 때아닌 휴가를



사랑의 바자 개최예배

받아 수고하신 남성성도님들과 청년부 회원들, 수업 후 학교친구들에게 간식을 사주기 위하여 친구들을 데리고 온 중고등부 학생들, 비를 맞아가며 성도들을 위하여 천막설치를 해주신 시설담당위원들과 주차관리위원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학교수업 등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쪼개어 식당청소 등 힘든 일을 담당해주신 대학부 회원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각 성도님들이 여러 부분에서 말없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모퉁이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종윤목사님과 서울교회가 소망하고 있는 "아가페타운"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내년에는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더욱 발전적인 바자를 기대해 보면서 올해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진: 정치은 집사, 최영철 성도, 이승준 성도



저서 사인회



에버리부 호떡매장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노은아 선생의 해금 연주로 드린다. 노은아 선생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재학중이다. 오늘 찬양곡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C. A. Miles)", "여기에 모인 우리(Don Besig)" 등 세곡을 권정구 선생(서울대 음대 및 동 대학원 졸업)의 기타 협연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린다.

## 호산나대학 국토대장정

호산나대학은 2010년 9월 8일(수)부터 17일(금)까지 9박 10일간 국토대장정을 갖는다. 호렘 오대산청소년수련원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토대장정은 "세상을 향한 한걸음"이라는 주제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출발하여 연천, 철원, 화천을 거쳐 호산나대학까지 214.73km 거리를 도보로 이동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호산나대학 국토대장정은 대학과 대한학교 학생 20명과 학교 및 수련원직원을 포함 총 30명 정도가 참여한다.

### 동정

■ 이종윤 목사: 9월중에 개최되는 중요 장로교단총회를 한장 총 대표회장으로 방문 하여 1교단 다체제에 대한 이해와 인사를 한다. 14일(화) 대신총회와 기장총회, 15일(수) 백석총회와 함신총회를 방문한다. 16일(목) 한국로잔위원회 월례모임 및 로잔3대회 참가자 발대식. 17일(금) 퇴임 외교관 신우회 설교를 한다.

- 특녀: 유문건 목사 김안성 목사 가정 14교구 손동혁 집사, 최경선 집사 가정
- 특남: 3교구 김진한성도 하선경 성도 가정

- 주간식당봉사: 제1권사회(9.12) 제2권사회(9.19)
- 금주의 식사: 임광식 원로장로 노영숙 권사 가정 (손녀 결혼을 은혜중에 마치며)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 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38학기 목회자 세미나, 성경대학 등 열린프로그램 많은 열매 맺도록
4. 1교단 다체제 한국장로교회 거듭나기 위하여
5. 국가의 평안과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위하여.

### ■ 교회외시는 길

